

제10대 회장 김은영 박사 특별 강연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 글은 2016년 4월 6일(수)에 개최된 평의원회의시 김은영 박사의 특별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탄생

1946년에 대한화학회, 1962년도에 한국화학공학회이 창립되었는데, 1978년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되기 전까지는 고분자 분야 연구자들은 주로 대한화학회나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당시 창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열성회원으로는 KIST에서 재직하였던 본인을 비롯하여 김계용 교수 (한양대), 김정엽 박사 (창립당시 인하대 재직, 후에 KIST 이직), 노익삼 교수 (인하대), 조의환 교수 (과학원), 진정일 교수 (고려대), 최남석 박사 (KIST), 홍성일 교수 (서울대) 가 있으며, 후에 김성철 교수 (KAIST)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창립준비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독립하여 고분자학회를 창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당시 대한화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하고 계셨던 성좌경 박사 (초대 고분자학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계획을 약간 미뤄 1976년에 고분자학회 발기를 하여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국고분자학회 심볼의 의미

현재의 로고는 Polymer Society of Korea 의 첫글자인 P, S, K를 90 도 각도로 눕혀서 형상화한 것이다. 90도 정도 눕힌 이유는 P, S, K 글자에 안정성을 주기 위함이고 1979년 종로5가에 있는 디자인 포장센터에 의뢰하여 마크를 제작하였다.

주요 원로 고분자 학자들의 활동

제 1대 한국고분자학회장을 역임하신 성좌경 박사님은 중앙공업연구소 유기화학과 과장, 국방부 과학연구소 부소장, 원자력 연구소 소장, 원자력 청장, 과학기술처장관,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인하대학교 총장 등 기관장을 많이 역임하셨으며, 노익삼 박사, 변형직 박사, 안태완 박사, 조의환 박사, 최남석 박사 등이 성 박사와 함께 근무하였다.

제 2대 한국고분자학회장은 성좌경 박사 (서울공대 화공과)가 역임하셨는데, 성 박사의 첫 번째 제자가 후에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홍성일 박사이고, 그 외에도 홍석주 박사, 올해 과총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이부섭 회장, 저와 최삼권 박사가 함께 성 박사 문하에 있었다.

이 외에도 주요 원로 고분자 학자로는 서울공대 학장, 북한과학원장, 경도대 교수를 역임하고, PVA 개발로 유명한 이승기 박사와 서울공대 학장과 흥한 비스코스레이온 공장을 세우신 김동일 박사님은 후에 과총 고문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봉직하였다. 또한 부산대 화공과, 한일합섬 전무, 고분자 학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형규 교수가 있으며 원자력 연구원에서 근무하셨던 변형직 박사는 전도성 고분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츠쿠바대 시라카와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셨는데 실제 전도성 고분자를 직접 발견한 연구자이다. 최삼권 박사는 KAIST 화학과에 계속 계셨고, 본 학회 감사를 역임하셨는데 일 년에 5-6 편씩 대한화학회지에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였고, 후에 고분자학회에 많은 논문을 투고해 주셨다.

최규석 박사, 유혁 박사, 노익삼 박사 세 분이 모두 동기인데 한양대 화공과에 계셨던 최규석 박사는 와세다대 쓰시다 교수 연구실에 계시다가 우리학회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충남대 화공과에 계시던 맹기석 박사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

며 유혁 박사는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초기 고분자학회 회장으로 1대 성좌경 박사, 2대 심정섭 박사를 이어서 3대 김원택 박사가 역임을 하였는데 김 박사의 주된 연구분야는 컴포지트였고, 4대 회장은 인하대에 계셨던 정기현 박사의 경우는 정통 고분자 연구를 하였다. 5대 회장은 오일 계통 연구를 하였던 김점식 박사이고, 6대는 노익삼 박사, 7대는 안태완 박사, 8대는 조의환 박사가 역임을 하였다. 8대까지의 회장 중 현재 4분이 생존해 계신다.

초기 고분자학회 전무이사로는 초대부터 3대까지 노익삼 박사, 김은영 박사, 홍성일 박사가 각각 역임하였는데 그 당시 전무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 학회 초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는데, 본인이 전무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지원금을 활발하게 유치하여 도레이에서 3,500 불, 동양나이론 등 섬유회사 5군데에서 100 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당시 KIST 옆 조그만 주택들이 200 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초기 고분자학회의 현황

1977 년과 1979 년의 회원은 각각 428명과 534 명인데, 한동안 회원 수는 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2015 년의 종신, 정회원은 1,900 명이고 학생회원까지 합치면 3000 명가량 된다고 하니 실로 큰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재정규모로 보면 1977년에 620만원, 본인이 전무이사시절은 2,500 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지금은 14억원 규모에 기금을 15억을 따로 보유할 정도로 커졌다. 학회지 논문출판 건수는 1977년 13편, 1979년 18편이며, 2005년에는 694편이 접수되어 심사과정을 거쳐 286편이 출판되었다. 추계학회의 논문발표는 1977년도에는 7편, 이 중 두 개는 총설이니 연구보고는 5편에 그쳤고 2년이 지난 1979년에도 11편 밖에 안 되는 등 발표할 만한 논문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2015년 추계학회에 1,047 편이나 발표되었다니 정말로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분자기기분석, 고분자하계대학이 1979년부터 시작되었고, 고분자 토론회는 1982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회의 재정적 지원을 돕고자 시작 하였다. 고분자기기분석의 경우 기업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습을 통해 교육을 시켰으며, 고분자 하계대학도 여름에 여러 기업체에서 참여하여 운영되었다.

초기 고분자학회의 국제교류

1979년에 최초로 한일 고분자 심포지엄을 KIST에서 개최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조의환 박사 외 3명, 일본에서는 일본 고분자학회장이신 Nakajima 교수, 가와이 교수, 일본 고분자학회 사무국장인 다카이토 등이 참여하였다. Nakajima 교수가 이승기 박사를 만나러 북한에 왕래한 기록이 있어서 신변걱정이 되셨던지 김성철 박사와 동기인 이장우 박사(당시 박사과정 학생)를 보디가드(?)로 동반하였다. 학회 창립 초기부터 일본 고분자 학회와는 긴밀한 교류가 있었는데, 1980년에는 일본 경도대학에서 2차 한일 고분자 심포지엄을 진행하여 한국에서는 최삼권 박사, 심정섭 박사 등 9명이 참가하였고, 일본에서는 Tsuruta 교수, Nakajima 교수, Saegusa 교수 등 10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후 큰 국제행사로는 1989년에 서울에서 IUPAC MACRO 미니심포지엄 (조직위원장: 안태완 교수)과 1996년에는 IUPAC MACRO SEOUL96 (조직위원장: 김광웅 박사)를 주최하였는데 1996년에 본인이 KIST 원장 재임 시절이라서 기업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LG, 한화, 대림 등 석유화학 회사에서 수 천만원 씩 후원을 받아 총 4 억원의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 언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여야만 한다. 또한, 현재 산업계에서 고분자학회 회장직을 주기적으로 맡아주시듯이 산업계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K-POP, TV 드라마처럼, 한국사람들의 특출한 두뇌를 활용하여 고분자를 한류로도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초창기 사진이나 기록물을 계속 해서 보존해 주시기를 현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리: 윤영이사 고민재>